

## ‘고용승계 거부’ 니토옵티칼 156명 채용 사실 밝혀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7명 고용 안 할 명분 없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해 온 한국니토옵티칼이 신규 채용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모기업 니토덴코에 노동자 고용 승계를 재차 요구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화재 발생 직후인 2022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 사측은 156명을 신규 채용했다. 2024년 1월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고용농성을 기점으로 보면 87명을 새로 뽑았다. 니토옵티칼 신규 채용은 올해도 계속 이뤄졌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두 곳 모두 LCD 편광필름을 생산했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 불이 나자, 일방적으로 법인 청산을 통보했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을 2023년 2월 해고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을 폐업하며 그 물량을 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한국옵티칼 공장 물량을 모두 가져간 니토옵티칼에서 자신들을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옵티칼지회는 구미 한국옵티칼, 평택 니토옵티칼 공장에서 농성 중이다.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지회는 일본 본사와 한일 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모기업 니토덴코는 교섭은 물론 한국 국회 면담 요청조차 거부했다. 오히려 해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자산 압류 시도를 벌이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11일 성명에서

“여력이 충분한데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던 노동자들의 해고 상태를 방관하는 니토옵티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7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먹튀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니토덴코는 고용 승계 면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고용 승계를 강제하는 ‘먹튀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2003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당시 50년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김주영 의원 역시 니토옵티칼 신규 채용 사실을 알리며 “수십년째 반복되는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에 비해 노동자를 지킬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자본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공모분야

2025년 금속노조 교섭 요구 1가지를 주제로 만든 1분 미만 세로 쇼츠

### 시상내용

최우수 1팀 캐리어 제습기 20L  
 우수 2팀 수상자 캐리커처  
 가작 2팀 벽걸이 나무서각

\* 5월 14일 (수) 수상작 발표

### 제출방법

쇼츠 영상, 참가신청서 [edit@ilabor.org](mailto:edit@ilabor.org)

- \* 상세 방법은 공문 참조 (QR코드)
- \* 금속노조 유튜브 채널에 모든 출품작 게시
- \* 유튜브, 캡컷 등 편집 프로그램 선택 자유

### 문의하기

선전홍보실 (02)2670-9507

### 참가대상

금속노조 조합원 누구나  
(개인 또는 팀 최대 5명)

### 공모기간

2025.4.14 (월) ~ 5.9 (금) 17시까지

